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SG 전략

미래에셋증권 ESG 레이팅 Preview

유건호
geonho.you@miraeasset.com



CONTENTS

미래에셋증권 ESG 레이팅 개요 3

- 미래에셋증권 ESG 레이팅 소개 3
- 미래 ESG 등급과 유니버스 4
- 미래에셋증권 ESG 스코어 산출 방법론 6

ESG 점수별 백테스팅 결과 8

- ESG 스코어 백테스팅 8
- 카본 스코어 백테스팅 결과 9
- 인센티브 스코어 백테스팅 결과 10
- 거버넌스 스코어 백테스팅 결과 11

Company ESG Rating 13

미래에셋증권 ESG 레이팅 개요

미래에셋증권 ESG 레이팅 소개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상반기부터 자체 ESG 레이팅(이하 '미래 ESG')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래 ESG는 카본(E), 인센티브(S), 거버넌스(G)의 3개 필러(Pillar)로 구성되며, 각 필러별 3개 세부 테마를 포함해 총 9개 테마를 기반으로 기업의 ESG 역량을 평가한다. 레이팅 결과는 반기 주기로 정기 업데이트된다.

카본(E) 필러는 탄소배출량 수준, 감축 성과의 지속성, 탈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여력 등을 통해 탄소 리스크 및 기후전환 대응 능력을 측정한다.

인센티브(S) 필러는 직원 보수 체계, 임원 보상 구조, 평균 근속연수 등을 바탕으로 인적자본 유지력과 보상구조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거버넌스(G) 필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반대·기권 비율, 공개서한·주주제안 건수 및 수용 여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핵심지표 15개 준수율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의 작동 여부를 판단한다.

각 필러 점수는 정량 데이터와 정성 분석을 결합해 산출된다. 이후 담당 애널리스트가 업종 특성과 기업별 사업 구조에 따라 필러 가중치(E/S/G)를 설정하고, 이 가중치 적용 결과로 최종 ESG 점수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이 방식은 단일 기준의 기계적 산정이 아닌, 산업·기업 특성까지 반영하는 실무형 레이팅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림 1. 미래 ESG 레이팅 점수 구성 필러와 테마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래 ESG 등급과 유니버스

ESG 등급

미래 ESG는 AAA부터 CCC까지 총 7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등급은 리더(Leader), 챌린저(Challenger), 팔로워(Follower) 3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기업의 ESG 역량과 리스크 관리 수준을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1) 리더(Leader) 등급: AAA · AA

리더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은 동일 업종 대비 E/S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이 명확하게 작동하는 기업이다. ESG 요소를 단순 준수 수준이 아니라 성과·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업종 내 벤치마크 역할을 수행한다.

2) 챌린저(Challenger) 등급: A · BBB · BB

챌린저 등급 기업은 E/S 리스크 관리 수준이 업종 평균과 유사하며, 의사결정 체계 역시 코스피 평균 수준의 거버넌스 견제 장치가 작동한다. 리더 등급과 비교하면 전략적 활용 및 내부 통제 강도는 다소 낮지만, 제도·프로세스 기반의 ESG 관리가 일정 수준 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 여지가 열려 있는 그룹이다.

3) 팔로워(Follower) 등급: B · CCC

팔로워 등급 기업은 동일 업종 대비 E/S 리스크 관리가 수동적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조적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ESG가 경영 의사결정의 변수로 활용되기보다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 2. 미래 ESG 레이팅 등급 체계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업데이트 때마다 기준 점수 변동 가능

ESG 레이팅 유니버스

각 필러는 데이터 출처와 커버리지 범위가 상이하다. 카본 필러(E)는 MSCI 탄소 데이터, 인센티브 필러(S)는 데이터가이드의 임직원 정보, 거버넌스 필러(G)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로 인해 필러별 커버리지 기업 수는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구성된다.

① E 필러(카본): 297개 기업
② S 필러(인센티브): 1,769개 기업
③ G 필러(거버넌스): 493개 기업

다만 ESG 레이팅은 원칙적으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업은 업종 구조 및 회계기준의 이질성으로 인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 영향력이 미미한 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만 분석 유니버스에 포함한다.

위 기준을 모두 적용한 후 데이터 커버리지가 교차하는 기업은 총 190개로 미래 ESG 레이팅 유니버스에 해당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가 커버하는 기업분석 유니버스는 159개 종목이며, 이 가운데 미래 ESG 레이팅 데이터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업은 95개로 나타난다. 즉, 2025년 하반기 기준 ESG 레이팅과 리서치 커버리지가 중첩되는 실질 분석 대상 기업군은 95개이다.

그림 3. 미래 ESG 레이팅 유니버스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데이터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유니버스 변동

미래에셋증권 ESG 스코어 산출 방법론

미래 ESG 레이팅은 최종 ESG 스코어와 필러별 스코어(E/S/G)로 구성된다. 최종 ESG 스코어는 업종별로 정규화한 각 필러 스코어에 담당 애널리스트가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하며, 이때 거버넌스(G) 필러의 가중치는 최소 50%로 고정하고 환경(E)과 사회(S) 필러의 가중치는 애널리스트가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카본(Carbon) 스코어는 단순 배출 수준이 아니라 탄소 감축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평가한다. 기업별 탄소배출량을 업종 내 상대적 위치로 정규화한 뒤, 배출량감축 점수와 투자여력 점수를 곱하여 결합한다. 배출량감축 점수는 일정 기간 탄소집약도 감소 정도를, 투자여력 점수는 감축 활동을 지속할 재무적 여력(ROE)을 의미하며, 두 값은 0~1 범위로 정규화된다. 이 곱셈 구조는 투자여력이 충분하지만 감축 실적이 부족한 기업과 감축 성과는 높으나 재무성과 미흡으로 인한 왜곡을 가려내 과대·과소평가를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카본 스코어는 감축의 질(quality)과 실행 의지(will)를 반영해 저탄소 전환 역량이 높은 기업을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센티브(Incentive) 스코어는 임직원 보상 구조와 인적자본 유지력을 평가한다. 직원 1인당 보수, 임원 1인당 보수, 평균 근속연수를 업종별로 정규화한 값을 합산하며, 절대 규모가 아닌 동종 업종 대비 상대적 인적자원 확보 경쟁력을 반영한다.

거버넌스(Governance) 스코어는 일부 평가사가 시행하는 이슈 발생시 감점하는 구조와 달리 견제와 균형의 작동 여부를 평가의 중심에 둔다. 주주총회 안건의 반대·기권 비율이 높고, 공개서한·주주제안 등 주주행동이 활발하며, 주주제안 수용도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15개 핵심 지표 준수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즉, 미래 ESG 거버넌스 점수는 "시끄러운" 기업이 "조용한" 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거버넌스 스코어는 업종별 정규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지배구조의 성숙도를 업종 특성보다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 1. 스코어별 산출 방법 및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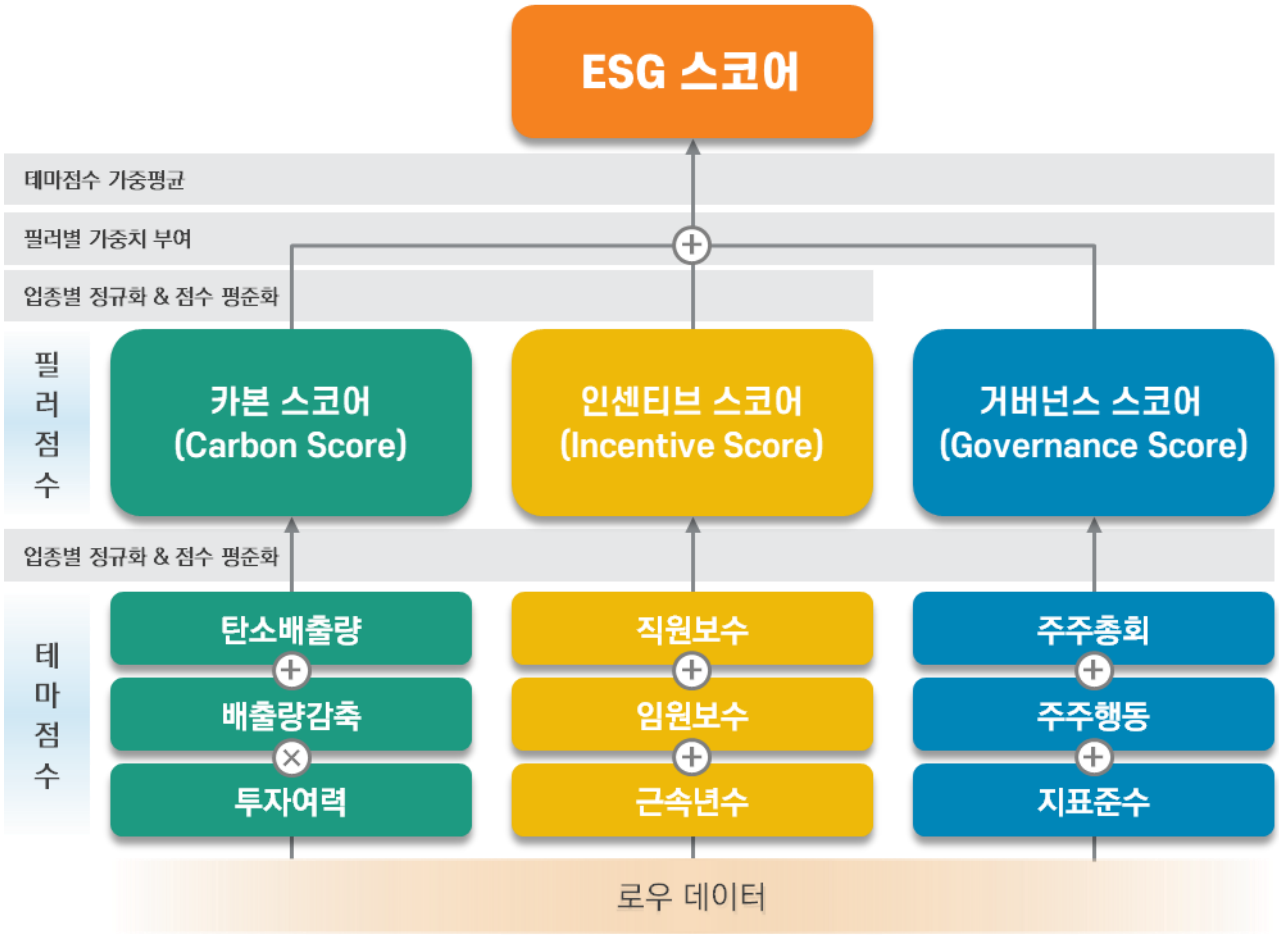
스코어	산출	스케일
ESG 스코어	= (E 가중치 × 카본스코어) + (S 가중치 × 인센티브 스코어) + (G 가중치 × 거버넌스 스코어)	0~10
카본 스코어 (E)	= 탄소배출량 점수 + (투자여력 점수 × 배출량감축 점수)*	0~10
탄소배출량 점수	= Scope 1 & 2 탄소집약도** ➡ (탄소집약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	
배출량감축 점수	= 3년 평균 탄소집약도 변화율 ➡ (탄소집약도 변화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0~1
투자여력 점수	= 36개월 평균 ROE	
인센티브 스코어 (S)	= 직원보수 점수 + 임원보수 점수 + 근속년수 점수	0~10
직원보수 점수	= 직원 1인당 보수	
임원보수 점수	= 임원 1인당 보수	0~1
근속년수 점수	= 직원 평균 근속년수	
거버넌스 스코어 (G)	= 주주총회 점수 + 주주행동 점수 + 지표준수 점수	0~10
주주총회 점수	= 당기·전기 주주총회 안건 종합 반대·기권 비율 ➡ (반대·기권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주주행동 점수	= 공개서한·주주제안 수취 건 수 + 수용 공개서한 수 + 가결 주주제안 수 ➡ (주주행동이 빈번할수록 높은 점수)	0~1
지표준수 점수	= 당기·전기 평균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 당기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폭(%p)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여력 점수(0~1)와 배출량감축 점수(0~1) 곱셈 결과는 0~1로 도출된다. 두 점수를 곱한 이유는 다음의 2가지 경우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1) 투자여력은 충분한데 배출량감축 성과가 미진한 경우 점수를 상쇄시키기 위함
2) 배출량감축 성과는 높은데 투자여력이 낮은 경우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탄소배출량 감소를 감안하기 위함

** Scope 1 & 2 탄소집약도는 기업의 직접탄소배출량(Scope 1)과 간접탄소배출량(Scope 2)을 매출로 나눈 상대지표

그림 4. 미래 ESG 스코어 산출 과정 요약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SG 점수별 백테스팅 결과

ESG 스코어 백테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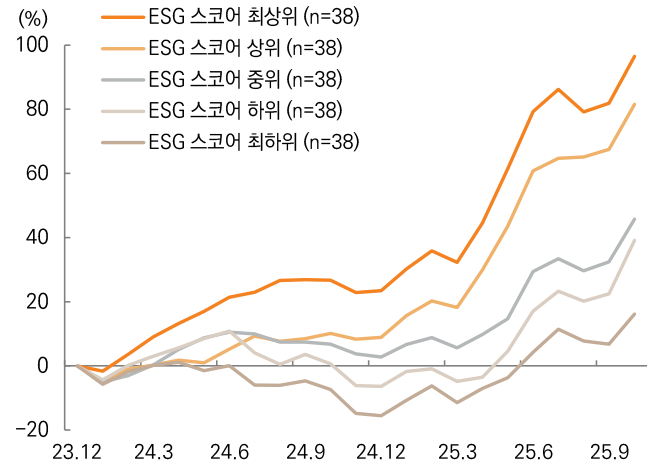
미래에셋 ESG 스코어를 5분위와 3분위로 나누어 백테스트를 진행했다. 백테스트 방식은 현재 산출된 ESG 스코어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시점에서 상위 기업부터 동일가중으로 매수·보유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정보를 활용하는 룩어헤드 바이어스(Look-ahead Bias)가 고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제 매매 전략 구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ESG 스코어가 수익률을 분리하는 유효한 신호인지 여부만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설계이기 때문이다.** 즉, 이 테스트는 실거래 재현성이 아니라 시그널 존재 여부에 초점을 둔다.

ESG 스코어의 가중치는 환경(E) 40%, 사회(S) 10%, 거버넌스(G) 50%로 고정했다. 특히 거버넌스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2024년을 백테스트 시작 시점으로 설정했다.

백테스트 결과는 5분위와 3분위 모두에서 명확한 수익률 차이를 보였다. 5분위 기준 상위 그룹의 누적수익률은 +96%, 최하위 그룹은 +16%였으며, 3분위 기준 상위 그룹은 +82%, 하위 그룹은 +29%였다. 이는 ESG 스코어가 기업 수익률의 분화를 설명하는 잠재적 시그널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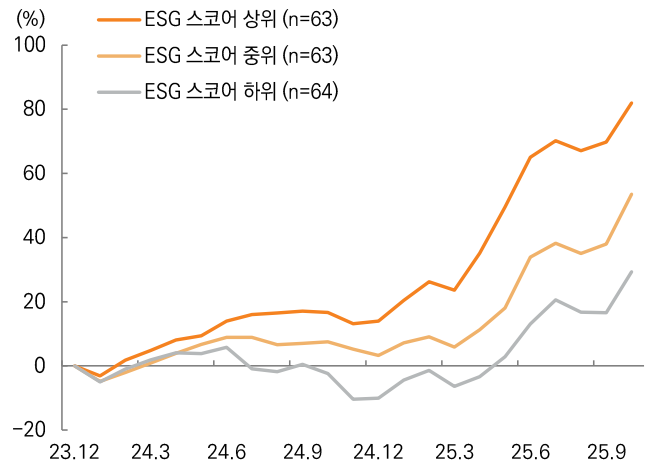
추가로 3분위 그룹의 사이즈 편향을 점검한 결과, 상위 63개 기업 중 46개(73%), 하위 64개 중 47개(73%)가 대기업집단 소속으로 나타나 계열 편향은 없었다. 그러나 자산·시총 규모는 차이를 보였다. 상위 그룹의 평균자산·시총은 각각 1,675억 원·830억 원, 하위 그룹은 2,089억 원·1,338억 원, 중위 그룹은 2,903억 원·1,939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ESG 상위 그룹이 가장 작은 규모였고, 상위-하위-중위 순으로 스몰캡-라지캡-미드캡 형태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ESG 스코어 효과가 단순한 사이즈 효과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림 5. ESG 스코어 5분위 백테스팅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ESG 스코어 3분위 백테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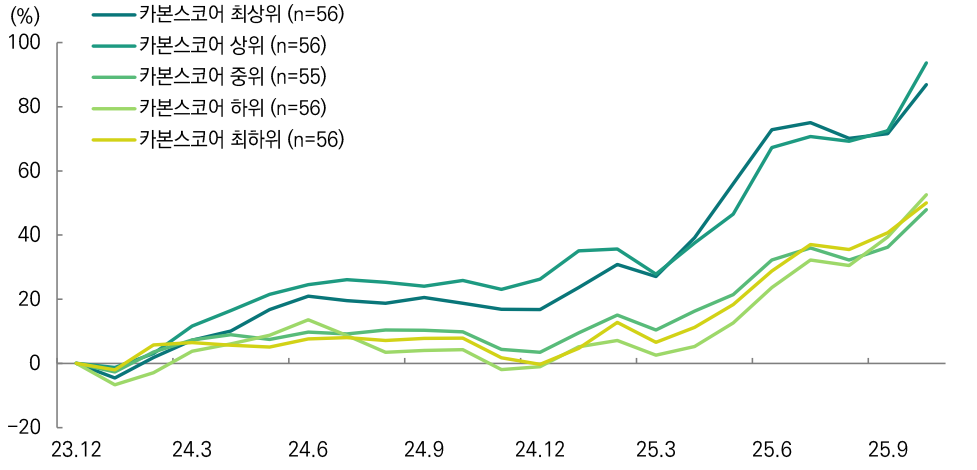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카본 스코어 백테스팅 결과

카본 스코어에 대해 ESG 스코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5분위 백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상위 그룹과 나머지 그룹 간 수익률 격차가 확연했다. 최상위와 상위 그룹의 누적수익률은 각각 +87%와 +94%였던 반면, 중위·하위·최하위 그룹은 +48%·+53%·+50%이었다. 기업 규모를 비교하면 상위·중위·하위 그룹의 평균자산은 각각 약 16조·18조·33조 원으로 나타났다. 구성 종목의 대기업집단 소속 비율 또한 상위·중위·하위 그룹이 각각 70%·63%·80%로 확인돼, 규모나 계열 특성이 카본 스코어 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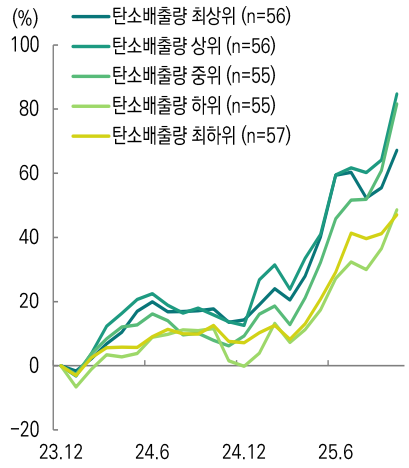
그러나 카본 스코어를 구성하는 세부 테마별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3년 평균 ROE를 반영한 투자여력 스코어는 별다른 분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탄소배출량 역시 상·하위 비교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시그널 강도는 미약했다. 반대로 배출량감축은 최상위와 최하위 간 성과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중위 구간에서는 분리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세 요인을 결합한 카본 스코어에서는 단일 지표만으로는 확보되지 않았던 추가 정보력이 발생해, 상·하위 그룹 간 성과가 한층 선명하게 분리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카본 스코어가 단순한 환경 지표의 합산이 아니라, 독립적인 프라이싱 시그널로 작동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7. 카본스코어 5분위 백테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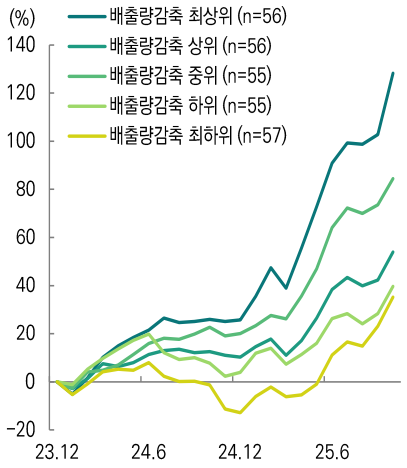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탄소배출량 5분위 백테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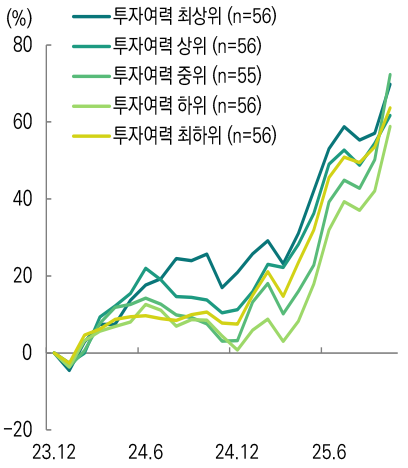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배출량감축 5분위 백테스팅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투자여력 5분위 백테스팅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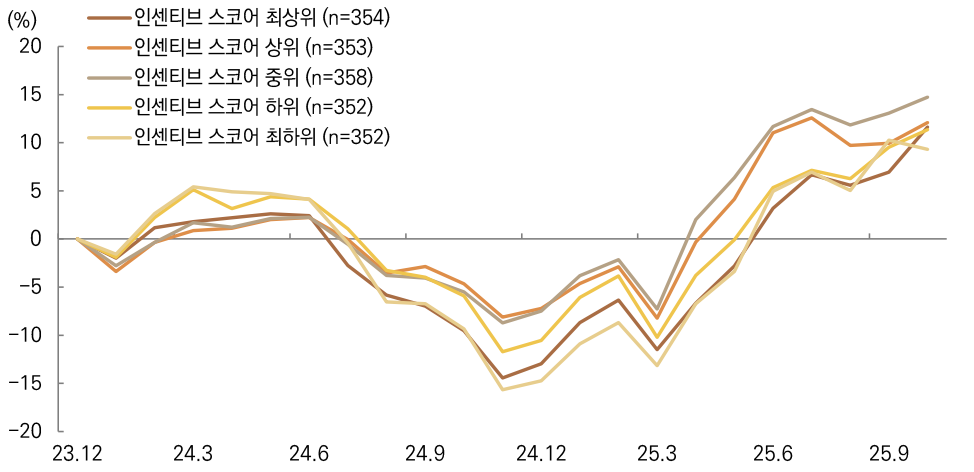
인센티브 스코어 백테스팅 결과

인센티브 스코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5분위 백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최상위에서 최하위 분위까지 뚜렷한 수익률의 위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부 테마를 구분해보면 임원보수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상위·상위 분위 포트폴리오는 각각 +23%, +17%였던 반면, 하위·최하위는 +7%, +2%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구조적 알파로 해석될 수준의 일관된 패턴은 아니며, 1인당 임원보수 규모가 기업의 수익성이나 규모와 높은 상관을 갖는 점이 수익률 차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센티브 스코어를 3분위로 구분해보면 상위 분위의 기업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위 그룹은 63개 중 51개가 기업집단 소속이었고 평균자산도 약 34.24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인센티브 스코어가 높을수록 단순한 보상 구조의 우열이 아니라, 기업 규모나 소속 집단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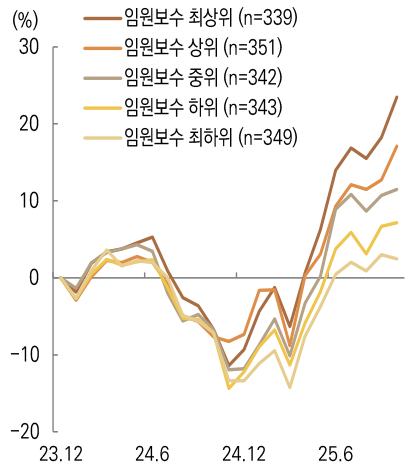
반면 직원보수와 근속년수는 분위별 차이가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위계나 패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11. 인센티브 스코어 5분위 백테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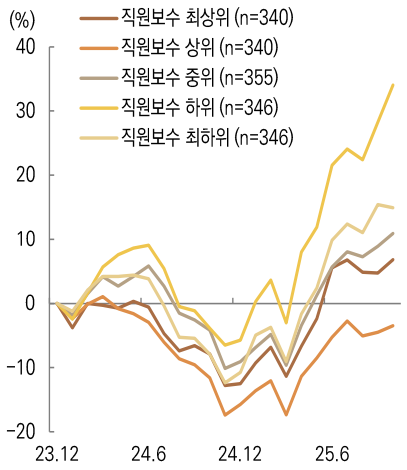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임원보수 5분위 백테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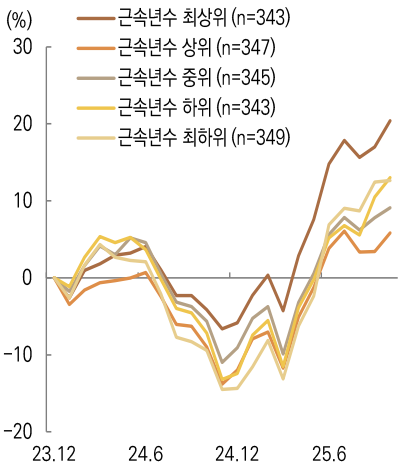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직원보수 5분위 백테스팅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근속년수 5분위 백테스팅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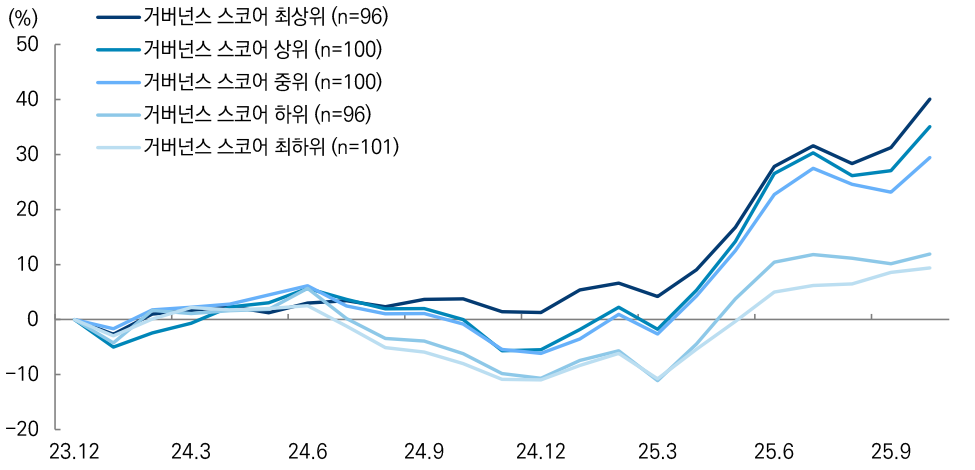
거버넌스 스코어 백테스팅 결과

거버넌스 스코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5분위 백테스팅을 실시한 결과, 카본 스코어와 유사하게 분위별 누적수익률 위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상위·상위 분위는 각각 +40%, +35%를 기록한 반면, 하위·최하위는 +12%, +9%에 그쳤다.

세부 테마에서도 일관된 차이가 관찰됐다. 주주총회 스코어는 반대·기권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데,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사이의 성과 차이가 컸으며 중위 구간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율과 개선폭을 반영한 지표 준수 스코어 역시 상·하위 간 차별성이 뚜렷했다. 주주행동 스코어는 전체적으로 활동 부재가 많아 하위 그룹이 다수였으나, 주주행동이 활발한 상위 그룹은 중·하위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상위 그룹의 표본이 5개에 불과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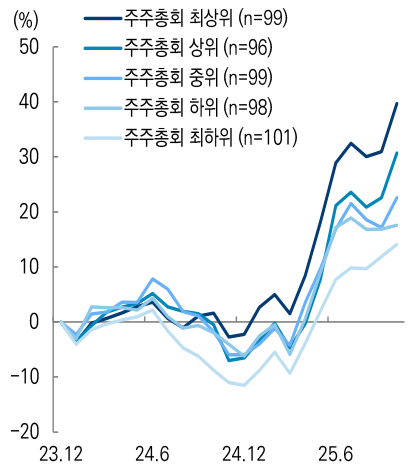
상위 분위 그룹의 평균자산은 약 29조원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견제와 감시 구조가 더 활발히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소속 비중도 상위·중위가 약 73%, 하위가 66%로 차이를 보여,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 활발함을 드러냈다.

그림 15. 거버넌스 스코어 5분위 백테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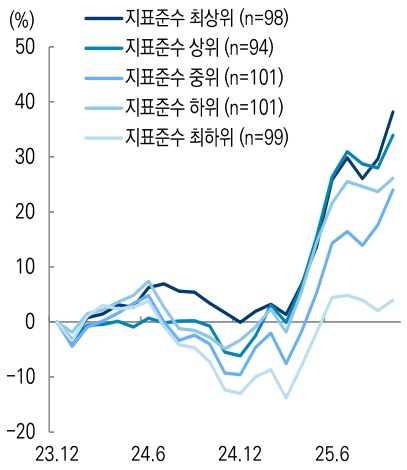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주주총회 5분위 백테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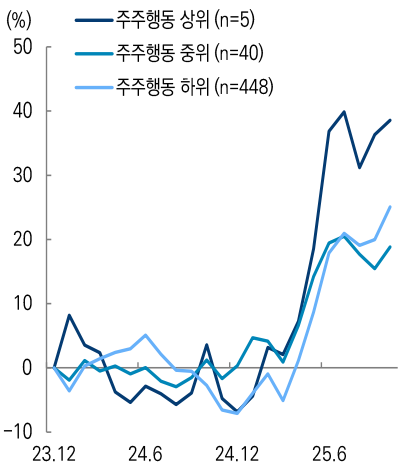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지표준수 5분위 백테스팅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주주행동 3분위 백테스팅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각 스코어 3분위 구성종목 수 및 규모 관련 통계

항목	분위	기업 수	기업집단 소속 기업 수	평균자산(백억원)	평균시총(백억원)
ESG 점수	상위	63	46 (73.0%)	1,675	830
	중위	63	41 (65.1%)	2,903	1,939
	하위	64	47 (73.4%)	2,089	1,338
카본	상위	64	45 (70.3%)	1,571	787
	중위	63	40 (63.5%)	1,785	1,002
	하위	63	49 (77.8%)	3,320	2,327
인센티브	상위	63	51 (81.0%)	3,424	2,048
	중위	64	49 (76.6%)	1,885	1,485
	하위	63	34 (54.0%)	1,361	572
거버넌스	상위	63	46 (73.0%)	2,916	2,535
	중위	62	45 (72.6%)	1,921	657
	하위	65	43 (66.2%)	1,835	918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시가총액은 10월 말 기준

Company ESG Rating

미래 ESG 레이팅 결과 요약

미래 ESG 레이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등 4개 기업에 적용한 결과, 네 기업 모두 A 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업종 내 ESG 리더 그룹으로 확인됐다. 직전 점수와 등급은 예시 값으로 실제와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애널리스트 판단 없이 가중치(E 40%, S 10%, G 50%)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ESG 6.0점

탄소배출량 자체는 낮은 편이고 투자여력도 충분하지만, 탄소배출 감축 실적이 업종 평균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탄소관리 역량이 우수해 높은 카본스코어를 확보했다.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임원 및 직원 보수, 근속년수가 모두 업종 평균을 약간 상회해 준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거버넌스는 주주행동 이슈가 거의 없고 주총 관련 분쟁 수준도 코스피 평균선에 머물러 무난한 점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ESG 체계를 갖춘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물산 – ESG 7.0점

업종 대비 탄소집약도가 낮아 기본적인 배출 관리가 안정적이며, 이로 인해 높은 카본스코어를 확보했다. 임원보수·직원보수·근속년수가 모두 업계 평균을 명확히 상회해 인센티브 스코어 역시 강점을 보였다. 다만 거버넌스에서는 간헐적인 주주행동이 존재하고 주총에서 반대·기권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핵심지표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주주들의 견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셀트리온 – ESG 5.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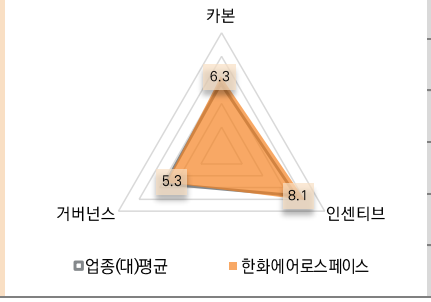
제약·바이오 업종은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ESG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5.8점임에도 A 등급을 획득했다. 탄소배출 및 감축 실적은 업종 평균 수준이며 투자여력 역시 평균보다 소폭 높은 정도다.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임원보수와 직원보수가 모두 업종 대비 높은 편이지만 근속년수가 짧아 내부 인적구조 관리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다. 거버넌스는 주주행동은 없었으나 주총에서 일부 의견 충돌이 존재했고 평균보다 높은 핵심지표 준수율을 보이며 무난한 수준의 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모비스 – ESG 5.9점

탄소집약도 통제 능력이 특히 뛰어나 탄소배출 관리 점수가 높으며, 감축 실적 또한 업종 평균 이상으로 매우 우수해 높은 카본스코어를 기록했다. 인센티브 부문 역시 임직원 보수와 근속년수 모두 업계 수준을 상회했으며, 특히 보수 규모는 업계 최상위권으로 확인된다. 거버넌스 항목에서는 주주행동은 없었지만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이견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제도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감점 요소보다는 구조적 대응이 점수에 반영된 형태로, 결과적으로 ESG 전체 점수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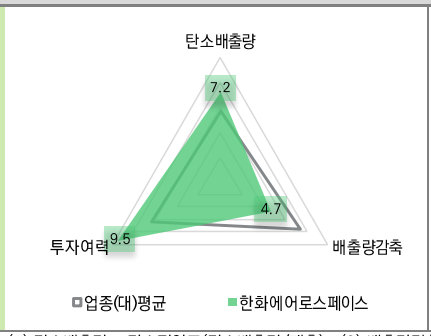
미래 ESG 레이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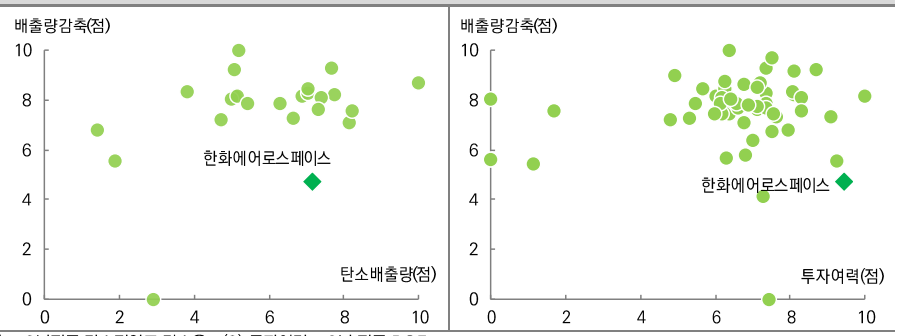


ESG 점수	6.0	=	직전점수	6.0	업종(대)	산업재
ESG 등급	A	▲	직전등급	BBB	업종(중)	자본재
세부항목	점수	등급	가중치(%)		담당자	정동호
카본(E)	6.3	AA	40	▲	담당자 코멘트	
인센티브(S)	8.1	AA	10	▼		
거버넌스(G)	5.3	A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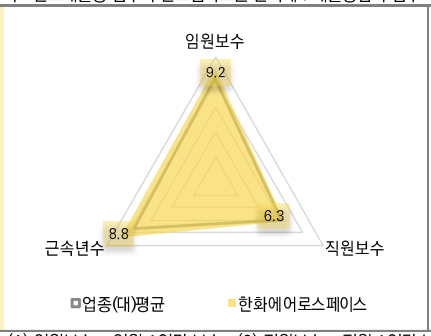
ESG 항목별 세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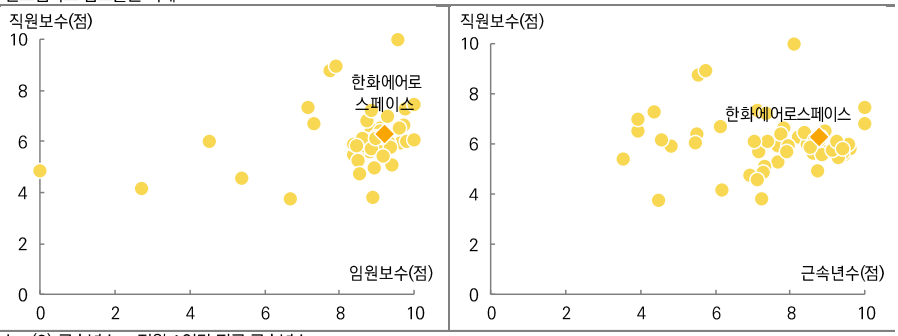


동일업종(대) 기업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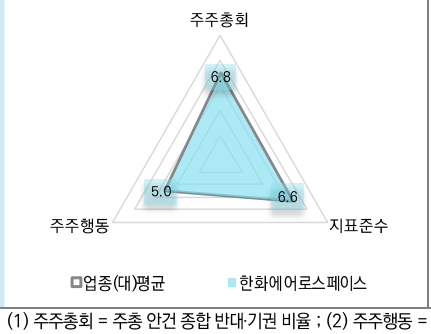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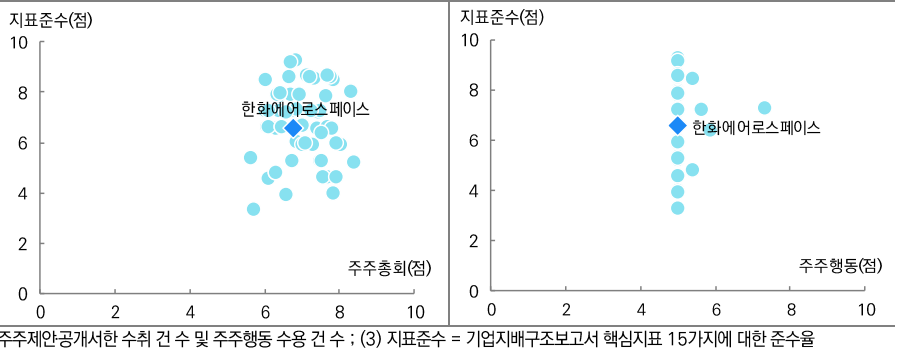
(1) 탄소배출량 =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매출) ; (2) 배출량감축 = 3년평균 탄소집약도 감소율 ; (3) 투자여력 = 3년 평균 ROE
주: 탄소배출량 점수와 탄소집약도는 반비례 ; 배출량감축 점수와 탄소집약도 감소율은 비례





(1) 임원보수 = 임원 1인당 보수 ; (2) 직원보수 = 직원 1인당 보수 ; (3) 근속년수 = 직원 1인당 평균 근속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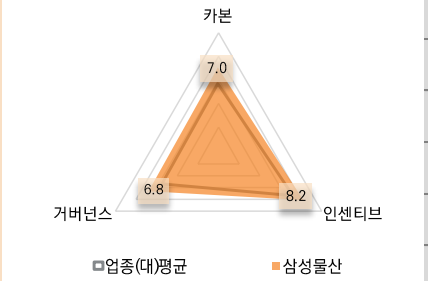
(1) 주주총회 = 주총 안건 종합 반대·기권 비율 ; (2) 주주행동 = 주주제안공개서한 수취 건 수 및 주주행동 수용 건 수 ; (3) 지표준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15가지에 대한 준수율
주: 주주총회 및 주주행동 점수가 높을 수록 견제받고 있음을 의미

점수	산정식 및 설명
ESG 점수	ESG 점수 = (E 가중치 × 카본스코어) + (S 가중치 × 인센티브 스코어) + (G 가중치 × 거버넌스 스코어)
카본 스코어	카본 스코어 = 탄소배출량 점수 + (투자여력 점수 × 배출량감축 점수)
인센티브 스코어	인센티브 스코어 = 임원보수 점수 + 직원보수 점수 + 근속년수 점수
거버넌스 스코어	거버넌스 스코어 = 주주총회 점수 + 주주행동 점수 + 지표준수 점수

자료: MSCI, FnGuide,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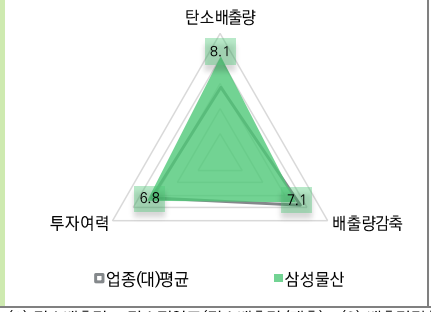
미래 ESG 레이팅

삼성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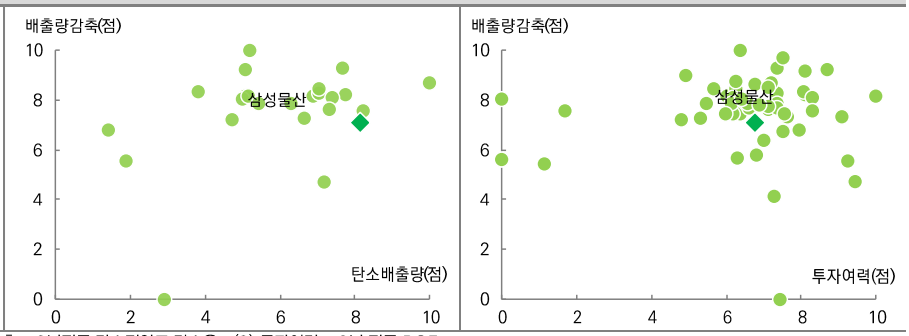


ESG 점수	7.0	=	직전점수	7.0	업종(대)	산업재
ESG 등급	AA	▲	직전등급	BBB	업종(중)	자본재
세부항목	점수	등급	가중치(%)		담당자	김기룡
카본(E)	7.0	AA	40	▲	담당자 코멘트	
인센티브(S)	8.2	AA	10	▼		
거버넌스(G)	6.8	AA	50	=		

ESG 항목별 세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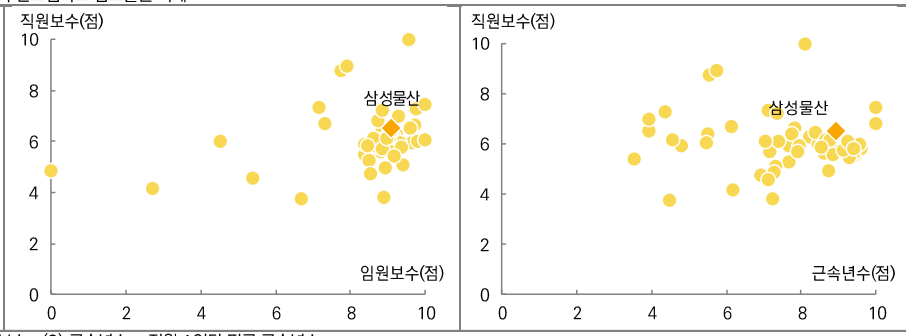


동일업종(대) 기업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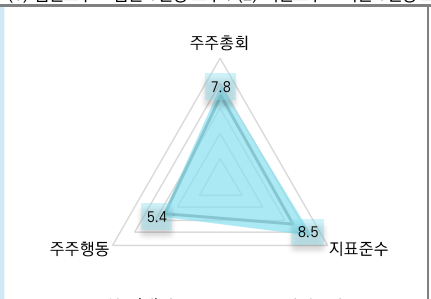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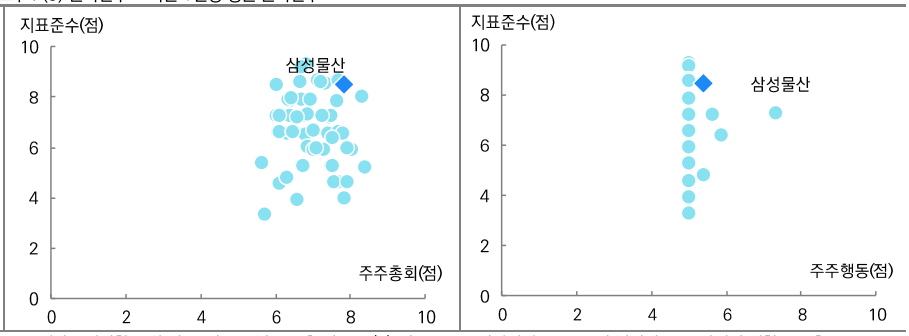
(1) 탄소배출량 =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매출) ; (2) 배출량감축 = 3년평균 탄소집약도 감소율 ; (3) 투자여력 = 3년 평균 ROE
주: 탄소배출량 점수와 탄소집약도는 반비례 ; 배출량감축 점수와 탄소집약도 감소율은 비례





(1) 임원보수 = 임원 1인당 보수 ; (2) 직원보수 = 직원 1인당 보수 ; (3) 근속년수 = 직원 1인당 평균 근속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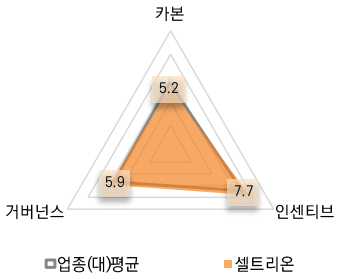
(1) 주주총회 = 주총 안건 종합 반대·기권 비율 ; (2) 주주행동 = 주주제안공개서한 수취 건 수 및 주주행동 수용 건 수 ; (3) 지표준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15가지에 대한 준수율
주: 주주총회 및 주주행동 점수가 높을 수록 견제받고 있음을 의미

점수	산정식 및 설명
ESG 점수	ESG 점수 = (E 가중치 × 카본스코어) + (S 가중치 × 인센티브 스코어) + (G 가중치 × 거버넌스 스코어)
카본 스코어	카본 스코어 = 탄소배출량 점수 + (투자여력 점수 × 배출량감축 점수)
인센티브 스코어	인센티브 스코어 = 임원보수 점수 + 직원보수 점수 + 근속년수 점수
거버넌스 스코어	거버넌스 스코어 = 주주총회 점수 + 주주행동 점수 + 지표준수 점수

자료: MSCI, FnGuide,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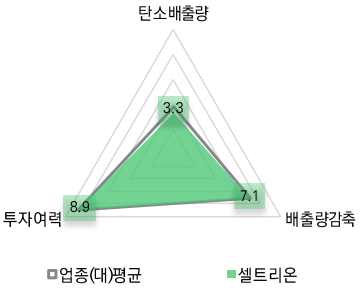
미래 ESG 레이팅

셀트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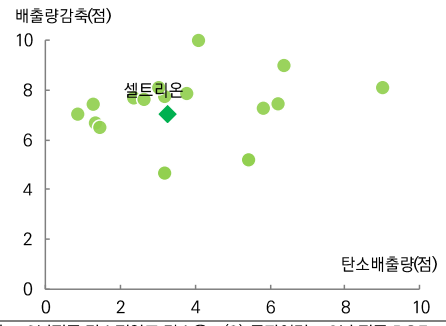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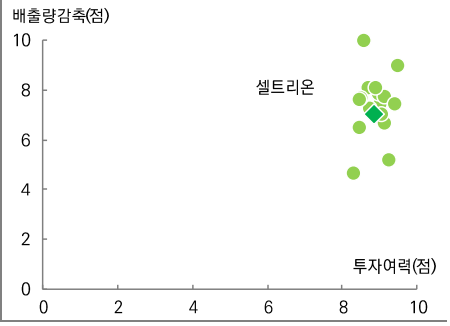
ESG 점수	5.8	=	직전점수	5.8	업종(대)	건강관리
ESG 등급	A	▲	직전등급	BBB	업종(중)	제약과생물공학
세부항목	점수	등급	가중치(%)		담당자	김승민
카본(E)	5.2	A	40	▲	담당자 코멘트	
인센티브(S)	7.7	A	10	▼		
거버넌스(G)	5.9	AA	50	=		

ESG 항목별 세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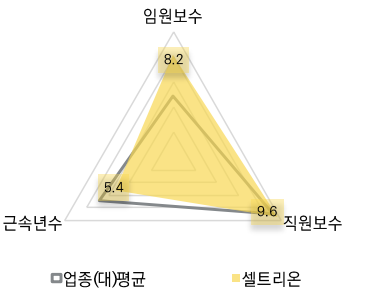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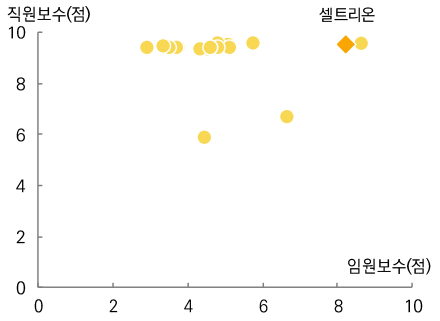
동일업종(대) 기업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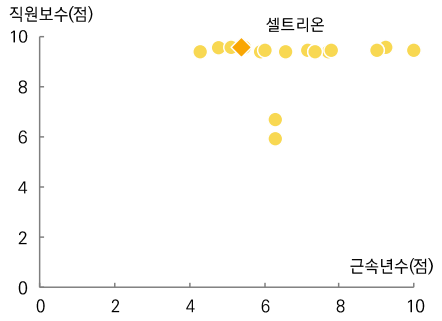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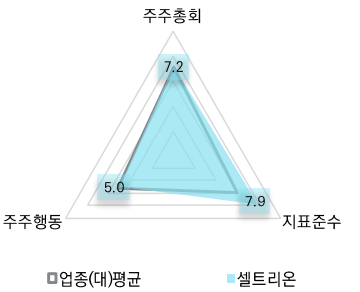
(1) 탄소배출량 =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매출) ; (2) 배출량감축 = 3년평균 탄소집약도 감소율 ; (3) 투자여력 = 3년 평균 ROE
주: 탄소배출량 점수와 탄소집약도는 반비례 ; 배출량감축 점수와 탄소집약도 감소율은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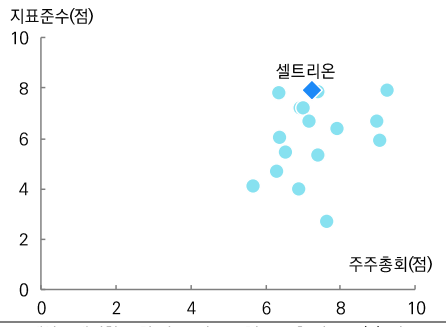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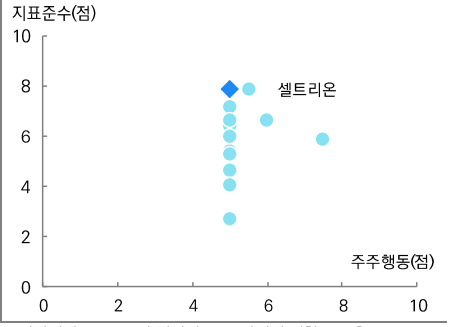




(1) 임원보수 = 임원 1인당 보수 ; (2) 직원보수 = 직원 1인당 보수 ; (3) 근속년수 = 직원 1인당 평균 근속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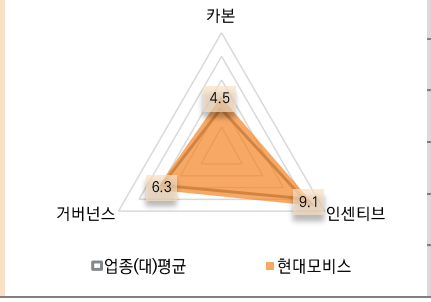
(1) 주주총회 = 주총 안건 종합 반대·기권 비율 ; (2) 주주행동 = 주주제안공개서한 수취 건 수 및 주주행동 수용 건 수 ; (3) 지표준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15가지에 대한 준수율
주: 주주총회 및 주주행동 점수가 높을 수록 견제받고 있음을 의미

점수	산정식 및 설명
ESG 점수	ESG 점수 = (E 가중치 × 카본스코어) + (S 가중치 × 인센티브 스코어) + (G 가중치 × 거버넌스 스코어)
카본 스코어	카본 스코어 = 탄소배출량 점수 + (투자여력 점수 × 배출량감축 점수)
인센티브 스코어	인센티브 스코어 = 임원보수 점수 + 직원보수 점수 + 근속년수 점수
거버넌스 스코어	거버넌스 스코어 = 주주총회 점수 + 주주행동 점수 + 지표준수 점수

자료: MSCI, FnGuide,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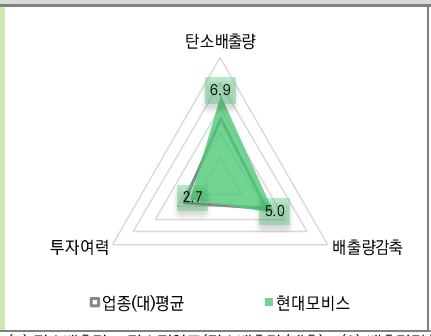
미래 ESG 레이팅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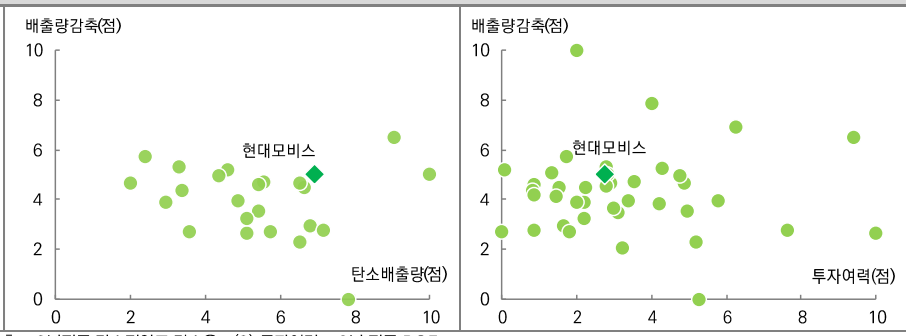


ESG 점수	5.9	=	직전점수	5.9	업종(대)	경기관련소비재
ESG 등급	A	▲	직전등급	BBB	업종(중)	자동차와부품
세부항목	점수	등급	가중치(%)		담당자	김진석
카본(E)	4.5	A	40	▲	담당자 코멘트	
인센티브(S)	9.1	AA	10	▼		
거버넌스(G)	6.3	AA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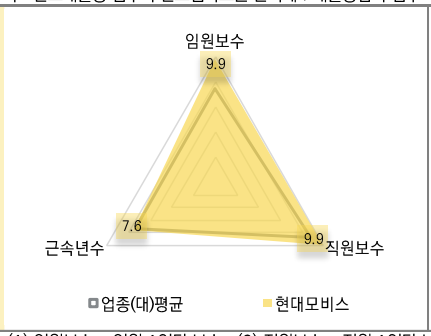
ESG 항목별 세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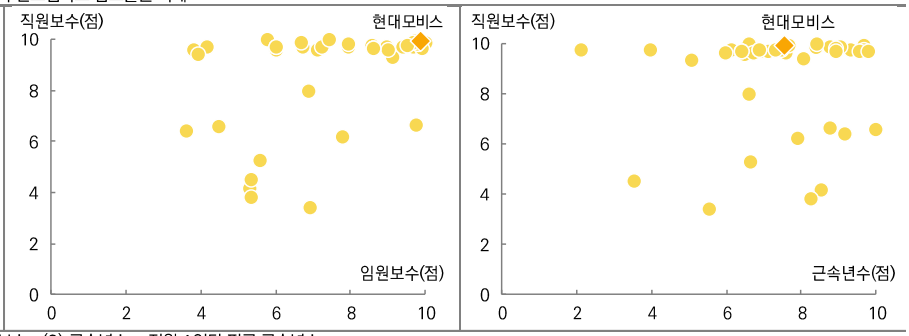


동일업종(대) 기업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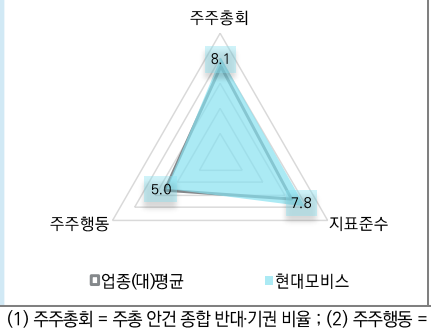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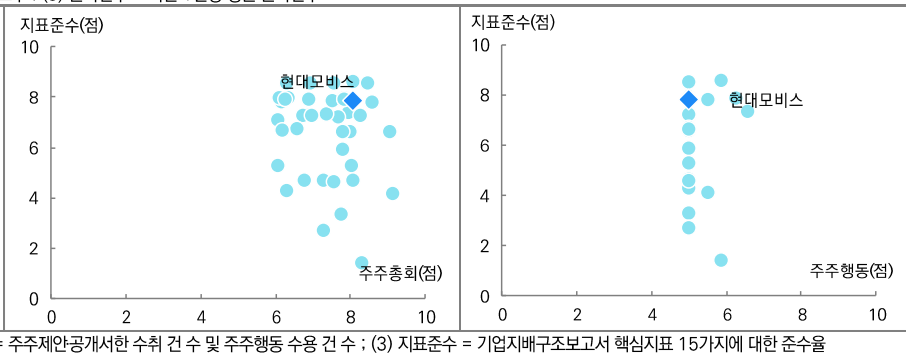
(1) 탄소배출량 =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매출) ; (2) 배출량감축 = 3년평균 탄소집약도 감소율 ; (3) 투자여력 = 3년 평균 ROE
주: 탄소배출량 점수와 탄소집약도는 반비례 ; 배출량감축 점수와 탄소집약도 감소율은 비례





(1) 임원보수 = 임원 1인당 보수 ; (2) 직원보수 = 직원 1인당 보수 ; (3) 근속년수 = 직원 1인당 평균 근속년수





(1) 주주총회 = 주총 안건 종합 반대·기권 비율 ; (2) 주주행동 = 주주제안공개서한 수취 건 수 및 주주행동 수용 건 수 ; (3) 지표준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15가지에 대한 준수율
주: 주주총회 및 주주행동 점수가 높을 수록 견제받고 있음을 의미

점수	산정식 및 설명
ESG 점수	ESG 점수 = (E 가중치 × 카본스코어) + (S 가중치 × 인센티브 스코어) + (G 가중치 × 거버넌스 스코어)
카본 스코어	카본 스코어 = 탄소배출량 점수 + (투자여력 점수 × 배출량감축 점수)
인센티브 스코어	인센티브 스코어 = 임원보수 점수 + 직원보수 점수 + 근속년수 점수
거버넌스 스코어	거버넌스 스코어 = 주주총회 점수 + 주주행동 점수 + 지표준수 점수

자료: MSCI, FnGuide,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